



일상을 준비하며 제주시민속오일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하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년여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제주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고통의 시간이 희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민 속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 사진 김명선

## 더 나아가는 민생의정,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

### 코로나19 극복, 일상 회복, 경제 활성화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자연녹지 난개발,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하수, 주택 문제, 대형카지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현안과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제주의 편, 도민의 편,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새해에도 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 일

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과 탄소중립 정책,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를 막을 방안도 세울 것입니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권한만 있고,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국가에 반납하거나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새해 제주도의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도민들께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을 펴겠습니다.

동시에 청렴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청렴 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면 안내

신년사·신년참배

▶ 2



2022년 위원회 운영방향 ▶ 6~8

생생 의정활동

▶ 9

사무처 소식

▶ 16

# 2022년 희망과 번영의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기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감하고 지혜로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 회복'이 꿈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염자가 재확산돼 잠시 멈춰 서 있지만,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올해도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소중한 일상의 회복은 물론 경제위기를 돌

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에의 선제 대비 그리고 제주형 뉴딜, 탄소중립전략 추진 등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 절차 등 4·3의 완전 해결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면 개정, 제주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 해소, 공정한 대선과 지방선거도 우리 도의회에 주어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11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12대 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2022년을 희망과 번영의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 도민 여러분의 무사안녕을 기원합니다

국립제주호국원, 4·3평화공원·창열사 찾아 신년참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제주호국원, 조천 향

일기념관 내 창열사, 제주4·3평화공원을 잇달아 방문해 참배했다.

신년참배는 8시 20분 국립제주호국원을 시작으로, 9시 20분 창열사, 10시 20분 제주4·3평화공원 순서로 진행됐다. 좌남수 의장과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제주도민의 무사안녕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신년참배에는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현



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부공남 교육위원장, 그리고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 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창식 미래제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연호 부의장은 서귀포시 충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 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요청 국회 방문

좌남수 의장·김용범 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정수 3명 증원을 요청했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와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지난해 11월 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는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

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에서 제시했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논의 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해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좌남수 의장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기획단 출범  
4·3특별법 개정 노력 등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KNS뉴스통신·장애인문화신문이 주최하는 대회로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수상자는 국가발전부문, 의정부부문 등 총 13개 분야에서 선정해 좌남수 의장은 지역발전부문에서 ‘지역발전공헌’으로 수상했다.



조직위원회는 좌남수 의장에 대해 “의회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켜 ‘도의원 윤리조례 개정을 담은 혁신 1호’,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회기 중 외부강의를 금지하는 혁신 2호’, ‘의회 공무원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를 위한 혁신 3호’를

마련해 의회 내 조직체계 정비,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전부 개정 및 일부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및 여야 원내 대표와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낸 점

을 꼽았다. 또한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노력과 중광미술관 건립추진 등 문화예술 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아울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도와 P4G 최우수 파트너십 상 공동 수상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점 등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국가발전부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회의정부부문 소병훈·홍문표·김성원 국회의원 △행정부문 강임준 전북군산시장, 허석 전남 순천시장,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등이다.

## 고태순 의원,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강민숙·현길호 위원장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지난해 12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공약이행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태순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백년아라를 준비합시다’라는 공약사항 16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 어르신 목록비 지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청년 희망센터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 아이

돌봄지원 등 실천전략인 노인·복지, 청년·교육, 여성·보육, 문화·체육분야에 충실히 공약이행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약속대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강민숙 위원장은 원도심에 거주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 목표를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탐방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완료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현길호 위원장은 한국판뉴딜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

해, 제주형 뉴딜 TF 구성을 제안하고, 또 TF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지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프로세스 개발과 지속적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도의회 의원 12명, 제11회 우수의정대상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주관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성균, 강연호, 고용호, 김경학, 김용범, 김항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안창남, 양영식, 이경용 의원 등 12명에 대해 시상했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은 1차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일하는 의회 실현, 입법·행정감사 활동 우수의원 선정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에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의원, 우수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영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선정했다. 이어 행정감사부문은 우수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안창남(무소속, 삼양동·봉개동), 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의원을, 최우수 의원연구단체로는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을, 그리고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 문도이, 양정철, 고명렬, 양홍석, 강영철, 김양호, 오영진, 김원희, 강경림, 고신효씨를 선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를 진행하여 입법, 행정



감사 활동 우수 의원,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입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양영식 의원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법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강민숙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제도 마련 등의 입법활동이, 오영희 의원은 양성평등,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입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감사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현수 의원은 인권 영향평가 전면 도

입, 수어통역사 확대 요구, 김희현 의원은 개발행위 하수도 연결 규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제기, 안창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경영진단 등 문제 제기, 이상봉 의원은 4·3희생자 배·보상, 행정구역 개편 등의 굵직한 제주 현안 지적 및 갈등 해결 요구, 그리고 이승아 의원은 소아 청소년 비만을, 아동학대 관련 지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과 의원 공통적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구성된 14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미래지향적 융복합 관광산업 혁신 육성 등을 연구한 제

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을 최우수 연구단체로, 제주의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검토 및 육성 연구활동을 펼친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을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기여한 문도이 중앙동연합청년회 회장 등 10명을 의정활동협력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좌남수 의장은 "의정대상을 통해 의원들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영식·이승아 의원,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지난해 12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 주최·주관으로 해 열린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대표 발의했고, 이밖에도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

련 및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아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초 '복지이음마루' 설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권익향상·인권보장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의 제도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오영희 의원, 대한결핵협회 선정 우수의원상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결핵발병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하여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에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핵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 좌남수 의장, 4·3 유족회 감사패 받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제주 4·3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3 유족회(회장 오임종)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지난해 12월 22일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지원 및 헌혈권장 조례 개정 등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원장 조호규)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국사진학회 공로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사진학회(회장 양종훈)로부터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 제주 해녀 사진전을 통해 제주해녀의 위대한 보물적 가치와 품격을 높여준 것에 대한 공로패를 받았다.

## 강철남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지난해 12월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로부터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의 차별 없는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명의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강성민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 목민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 제주해녀협회, 고태순 의원에게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지난해 12월 15일 (사)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회장 김영자)로부터 수출길이 막힌 불소라에 대해 소비확대 및 소득증대 정책을 제안하는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도정 공백 우려 불식시키고 대화 통한 협치 구현할 것”

### 운영위원회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비상사국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특히,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제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은 원희룡 도정 7년의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 불식을 방

임인년 제주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코로나 이후의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

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4·3 해결, 제2공항 갈등 조정,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부 개정,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현안 해결을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가 임기 도중 사퇴함으로써, 도정 공백이 한층 우려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을 견인하고, 지사 권한 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 부재로 인해 도정의 주요 정

책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선보이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이 깊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투입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도정과 긴밀한 대화를 통한 협치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실현,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 중점 점검”

###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왔고, 우리 도민들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도민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된 일상은 제주도정의 운영과 집



이상봉 위원장

행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다소 어수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지난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도정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4·3특별법 개정 이후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스스로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 체감 향상 위한 보건복지안전 체계 확립 실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재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어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2022년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발휘해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인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재의



양영식 위원장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제주형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강화, 일상과 생활 영역의 균형 개선에 총력을 기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보편적 복지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주 서남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 발생으로 도민들께서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계

획부터 체계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도내 공공 및 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안전지수 5등급인 생활안전, 범죄, 화재분야에 있어서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제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현안, 현장소통 강화로 도민에게 희망드릴 것”

### 환경도시위원회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상황 속에서 방역·경제 등 큰 피해를 감내하면서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문제,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착공, 폐기물 처



강성의 위원장

리는, 악취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상수원 유출 발생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접하면서 도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력을, 도민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현안 속

에, 후대에 지속가능한, 더 가치 있는 제주를 물려주는데 있어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으로 노력해 왔지만, 부족함이 많음을 매번 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때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주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환경도시 분야는 도내 어디보다도 현안과 숙원사업이 쌓여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역간 불균형문제, 환경

과 개발에 따른 갈등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설치, 교통문제까지, 산적한 난제들에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도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도민들이 아픈 마음을 풀고 함박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는 환경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제도정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의 회복”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힘찬 두드림!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제주경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관광 등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민생안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제주경제 회복·민생안정·도민 여러분의 안전한 건강권 확보’에 더



안창남 위원장

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60회 탐라문화제 개막식 취소, 체육시설 부족으로 전지훈련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방만 마련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진통이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통

하여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경영평가가 저조한 출자·출연기관의 강력한 페널티 부여 및 관리감독상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국면 할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 모두를 위로하고 지속 향유 가능한 문화일상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 교통, 거주환경 등 도민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소통과

고민으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남은 민선 7기 정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여다보고,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8기 도정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밝은 한해에는 희망찬 소식들이 더욱 가득하길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상생을 추구했던 지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제주 민생경제 회복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노력”

###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임인(壬寅)년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해진 민생경제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 1차 산업과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기백을 통해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놓치기 쉬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소득문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주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



현길호 위원장

객 회복 등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경기는 지속하락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내실화하고, 2022년에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더해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하거나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

주 농가부채와 경영비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인력 문제를 비롯한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의 처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물 중심의 출하 체계에서 벗어나 가공산업 활성화와 품목의 다양화를 지향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환경위기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갯벌 식생 복원, 해중립 및 어초어장 관리를 강화하여 제주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전도민의 관심사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수산물 예상 피해 조사와 더불어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제주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시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비채널 확대를 위한 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및 상생할인 지원과 더불어 제주산 선동갈치 처리·저장비용,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통해 도내 경제의 선순환구조의 내실화를 목표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학습회복·교육자치 중점 둔 의정활동 펼칠 것”

### 교육위원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교육격차 심화와 과밀학급 문제, 심리적 위기로 인한 정서안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는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궁남 위원장

그래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의 신뢰를 찾기 위하여 학습회복과 교육자치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학습격차 해소와 방역문제, 정서

안정 지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학교시설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학습회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연구를 토대로 제주발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체계화하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성 확보를 위한 피선거권의 대폭적 확대와 중

선거구제를 반영하여 무투표당선 방지와 교육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가 정치의 이념과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민과 함께 교육자치의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물론 지속가능한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의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산 집행 적절성·투명성·효율성 확보 위해 협의 추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1,400억 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코로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125억 원의 예산과 210억 원의 기금 등을 조성하였고, 3차 추경에서는 1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 및 112억 원의 농민수당 등을 증액



박호형 위원장

하여 편성했습니다. 2022년의 운영방향 역시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미래의 설계와 정책의 연속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를 견지하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피로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품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적

절성과 투명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빠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관리, 이상기후 및 자연재난에 의한 긴급지원과 복구를 위해서 예산운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도 변함없이 전 도민의 생명과 재도약을 위해 올해 치러지는 양대 선거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변화

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확보와 지원을 확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탄소 없는 섬의 실현, 제주형 뉴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력이 적시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밝게 웃는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4·3희생자와 유족, 지역 사회 위한 실질적 정책 실현”

### 4·3특별위원회

2021년 4·3은 역동의 해를 맞으며, 제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등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고, 이로써 4·3은 국가 추념의 단계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실현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 한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강철남 위원장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하여 신청·접수, 심의·결정,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과 과제에 대

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주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념사업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3희생자 추념일이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 개최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4·3 전국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4·3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지원 등 4·3 기념사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4·3을 기억하고 추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유관 기관 및 전국 광역시·도의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4·3의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협약체결 등 상호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4·3의제 및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명, 수형인 문제, 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적 위상 방안 마련 등 4·3희생자와 유족, 지역 사회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실현하며, 4·3이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제주 도민 합의·참여 속 평화통일 문화 조성 앞장”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화협력 관련 연구와 교류 등을 통해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통일로 인해 우리 삶도 윤택해질 것이라는 생각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언제라



강민숙 위원장

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러한 때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의 돌파구를 찾는 데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인권, 보건·복지,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해 도민들 참여할 수 있는 통일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대안

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파구를 제주도, 대한민국 최남단 한라에서 백두까지 잇는 이런 역할을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을 설정하면서 여러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민들의 합의와 참여 속에 평화통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차근차근해나갈 수 있다고 다짐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참여형 평화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제

주도가 앞장서서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염원인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은 남녀노소,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로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 사회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가 중요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전선언은 통일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화를 위한 마음과 뜻을 모아봅니다.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문경운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에 대해 호국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23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은 대한

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어린나이에 전사하고,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하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사망하는 등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호국보훈은 ‘기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매해 6월 전투에서 맹렬히 싸워 승리를 거둔 장군들과 장병은 별도로 유족들을 초청하는 추념식을 열어 기억하나, 그 승리의 밑거름으로 목숨을 내던진 학도병들은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면서 호국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송창권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의원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지원 강화에 앞장섰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 전국 최초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를 제정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보훈예우수당을 지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월 6만원에서 9만 원, 사망위로금을 사망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충수당은 매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는 제주지역 첫 국립묘지가 개원하면서 유공자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를 위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25만 원의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주지원 등을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최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면서,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공익적 목적의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면제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세 조례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한영진 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사진·민생당, 비례대표)이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은 임신부, 가임기 여성인 모성 및 영유아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까지 대상으로 정의하여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영진 의원은 “모자·부자 보건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장애 발생을 예방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좌남수 의장,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주문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위드코로나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1월 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16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적모임 제한, 저녁 9시 영업시간 단축, 방

역 패스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좌남수 의장은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합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제3회 추경, 올해 본예산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제주형 방역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TF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형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품 감귤 원활한 처리 근본 대책 필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

제주도가 규격 외 노지감귤 과잉생산분을 가공용으로 추가 수매하고 시장격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월 7일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산 감귤 유통 처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규격 외 감귤 잔여 예상물량(1만~1만3000톤) 유통처리 대책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기간 및 물량 확대 ▷규격 외 감귤 잔여물량 신속한 시장격리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잔여물량 시장격리사업은 23억4000만 원을 들여 1만3천 톤을 이달 중순부터 수매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느



냐.”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감귤 조수입을 높이는 방법인지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도서지역 주민 복지향상 다양한 의견 제시

### 김경학 의원, 우도면 주민 간담회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1월 6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우도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고충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도면 어르신들의 시내권 병원 진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도 효도차-탐씨’에 대한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현재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 줄 것과 작년부터 지역주민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학 의원은 “우도 효도차 운행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에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이며, 작년부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센터를 통해 복지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어 부족하지만, 복지사업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 고려 친환경 스포츠시설 확충해야”

### 의원연구모임 체육진흥포럼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체육진흥포럼이 지난해 12월 27일 ‘친환경 제주스포츠 시설 확충 전략 중목별 토론회 : 테니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스포츠시설에 대한 발표와 함께 테니스 중목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체육진흥포럼의 대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포함될 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체육시설 확충 마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민철 교수(조선대)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스포츠시설 도입’을 주제로 국내외



실내 테니스 시설 도입현황 및 해외 에너지절약 스포츠시설 사례를 들며,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기후이상증세로 환경변화에 대비한 체육시설 도입과 에너지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조례청구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지방자치법」제19조(전부개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로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청구조례안 제출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 ■ 주민조례(발안)청구란?

-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청구인의 자격

-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 주민조례청구(발안)를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 \* 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함

## ■ 온라인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 주민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 ■ 주민조례(발안) 청구절차



## 제주4·3을 상징하는 ‘43번’ 버스, 되살려야!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으로 인해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도민의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조성된 평화인권기념공원으로서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며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43번 버스는 4·3평화공원을 경유하며 4·3유가족과 도민·관광객, 현장 체험 교육을 하려는 초·중·고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노선번호로서 알려졌지만,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 16일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서 43번 버스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 노선번호 체계가 3자리 숫자표기로 변경됨에 따라 343번으로 바뀐 것이다. ‘4·3’을 상징하던 43이라는 번호는 사라지고, 현재는 343번과 추가 신설된 344번 2개 노선이 4·3평화공원을 경유하고 있다. ‘343, 344’라는 숫자를 통해 ‘제주4·3’을 연상해 내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343번, 344번’이라는 노선번호에서 ‘4·3평화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원’이라는 목적지를 유추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3번 버스가 사라지면서 ‘4·3’을 의미하는 상징 하나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과거사와 관련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곳은 광주광역시 대 표적이다. 광주광역시는 노선번호 부여법칙에 따르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5·18자유공원-구전남도청-광주역-전남대-국립5·18민주묘지 등 교통 요충지와 5·18 관련 사적지를 경유한다.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노선’이지만 버스 이용객 대다수가 유공자임을 고려하여 예외와 편의 차원에서 노선 변경없이 운행하는 것으

43번 버스를 타고...

제주의 아픔과 제주도민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로 알려져 있지만,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마음과 태도가 담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518번 버스는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오늘도 관련 사적지와 주요 교통 요충지를 오가며 역사적 상징으로서 건재하다. 이제는 광주시민뿐 아니라 여기 제주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4·3을 기억하고 알리는 방식으로서 ‘43번’ 노선번호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백 마디 말로도 부족한 역사의 깊은 의미와 상징성을 짧은 번호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평화공원을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43번 버스를 타고 4·3의 의미를 되새기며 4·3평화공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제주에는 ‘4·3’을 상징하는 43번 버스가 달리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43번 버스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4·3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장치가 될 것이다.

올해 73주년을 맞은 4·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12월 9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큰 결실을 맺었다. 제주도민과 온 국민이 4·3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번 버스 또한 제주도민과 온 국민이 4·3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장치로서 제주에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43번 버스를 타고 4·3평화공원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이 제주의 아픔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거듭 바란다.

## 전국 유일 차고지증명 전면 강행 유감

제주지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분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 도시 제주의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교통 혼잡 등으로 자동차 수요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과 폐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차고지 확보 차량이 8만대 전후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전체차량 40만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30만대 가량의 차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약 30만대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 임대 가능한 복층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1면당 조성 비용이 대략 1억원) 약 30조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부분인 구도심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홍명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려 구도심이 더욱 침체되고, 공동화 현상과 편법차량등록 양산 등 역효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차량이 꼭 필요한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제주도 예산 중 매해 40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건설한다 해도 30만면의 추가차고지를 확보하려면 70년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행정은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도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자동

선진도시에서 검증되었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계획으로 전환해 제주가  
속히 좀 더 쾌적한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차 수요관리와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 불가능한 차고지증명 전면 시행이 아닌,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같은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장기적 계획으로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꾸리찌바, 암스테르담, 파리 같은 유럽 선진도시들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를 주된 정책으로 채택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차라리 선진국 도시처럼 시민이동이 편리하고 빠른 간선·지선 환승식 대중교

통 개편, 5~10km 시내이동에 더 효율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등 1인교통 인프라 구축, 30분 이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보행환경개선 같은 인프라 개선과 시민참여 캠페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처럼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나 정책완성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차고지증명 전면 강행은 유감이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주차문제와 자동차 수요관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차고지 전면 시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데, 결국 계획이 반이라 할 수 있다. 정책실현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외국 선진도시에서 검증되었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계획으로 전환해 제주가 속히 좀 더 쾌적한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신기한 제주어 ⑬

또라지다, 또라지다

(형용사) 아무지고 똑똑하다

〈예문〉

‘나나’는 ‘모모’ 오라방광 비스름하게 생긴 ‘구구’신디 시집가곡 이녁을 속삭이단 ‘모모’를 이즈불기로 뽀뽀먹었다. “나나씨!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코마씨?”(‘구구’가 또라지게 들으난) “‘구구’ 옴빠가 알앙 흡서게” 혼다. “게민 아기는 뗏이나 나코마씨?”(‘나나’가 부치러와도 ‘구구’ 얼굴 비룽이 바레명 브름 웃이 털어지는 꽃입소리로) “그것도 알앙흡서마는 뽀 둘이라사 금메달이엔마썸”

- 비스름하다, 비슴칙하다, 비슴하다 : 비슴하다
  - 속삭이다, 속석이다, 속석이다 : 속을 상하게 하다
  - 이즈불기로 : 잊어 버리기로
  - 뽀뽀 : 마음
  - 가코마씨? : 갈까요?
  - 들으난 : 물으니까
  - 알앙 흡서게 : 알아서 하세요
  - 게민 : 그러면
  - 뗏이나 : 뗏이나
- 나코마씨? : 날을까요?
  - 부치러와도, 부쳐로와도, 비끄러와도, 비쳐로와도 : 부끄러워도
  - 비룽이 : 바쁘히 바라보는 모양
  - 바레명 : 보면서
  - 브름 : 바람
  - 털어지는 : 떨어지는
  - 꽃입소리 : 꽃잎소리
  - 뽀 : 딸
  - 둘이라사 : 둘이어야



생활 & 법령뉴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Q

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보험이 적용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 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개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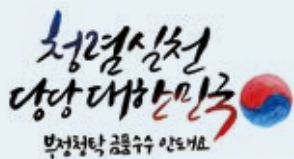
-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 월별              | 회수                  | 회 기                                  | 의사일정                                     | 주요 처리 안건                                                         |
|-----------------|---------------------|--------------------------------------|------------------------------------------|------------------------------------------------------------------|
| 계               | 10회                 | 총 141일<br>·정례회 2회/58일<br>·임시회 8회/83일 | 본회의 33일<br>상임위 54일<br>예결위 18일<br>공휴일 36일 |                                                                  |
| 2월              | 제402회<br>임시회        | 2.8.(화)<br>~2.17.(목)<br>(10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6일<br>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br>·2022년도 주요업무보고<br>·결산검사위원 선임<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3월              | 제403회<br>임시회        | 3.22.(화)<br>~3.30.(수)<br>(9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5일<br>공휴일 2일               | ·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4월              |                     |                                      |                                          |                                                                  |
| 5월              |                     |                                      |                                          |                                                                  |
| 6월              | 제404회<br>임시회        | 6.14.(화)<br>~6.21.(화)<br>(8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공휴일 2일               | ·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7월<br>~<br>8월   | 제405회<br>임시회        | 7.1.(금)<br>~7.6.(수)<br>(6일)          | 본회의 3일<br>상임위 1일<br>공휴일 2일               | ·의장·부의장 선거<br>·제12대 의회 개원식<br>·원구성 등                             |
|                 | 제406회<br>임시회        | 7.12.(화)<br>~7.22.(금)<br>(11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7일<br>공휴일 2일               | ·주요업무보고<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 제407회<br>임시회        | 7.26.(화)<br>~8.5.(금)<br>(11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3일<br>예결위 4일<br>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 9월              | 제408회<br>제1차<br>정례회 | 9.16.(금)<br>~10.12.(수)<br>(27일)      | 본회의 8일<br>상임위 5일<br>예결위 4일<br>공휴일 10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br>·결산 및 예비비 승인<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10월             | 제409회<br>임시회        | 10.18.(화)<br>~11. 9.(수)<br>(23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5일<br>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11월<br>~<br>12월 | 제410회<br>제2차<br>정례회 | 11.15.(화)<br>~12.15.(목)<br>(31일)     | 본회의 8일<br>상임위 7일<br>예결위 8일<br>공휴일 8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br>·2023년도 예산안<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12월             | 제411회<br>임시회        | 12.19.(월)<br>~12.23.(금)<br>(5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일<br>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br>·안전 처리<br>·현장방문 등                                  |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청탁금지법 Q&A



Q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 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코로나19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디딤돌 되길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특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특강 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는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의 변화와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한 제언을 담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를 발간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회식과 1·2부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에서는 오는 1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강성민 위원장의 발간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격려사,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

사 및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축사 등이 마련됐다.

1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저자들의 소감을 듣고, 집필진과의 간단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향자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권능 정책연구소함계살기 소장, 조경식 한국스타트업협회 회장, 강동우 제주매일 편집부국장이 집필진으로 참석했다.

2부에서는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주의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주가 어떤 정책기조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회영역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담았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은 “집필진과의 대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특강 등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출판기념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디딤돌을 놓아가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본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간기념식과 특강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 적정비용-적정효과 경제원칙 변화 불가피

###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북토크 개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1월 8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저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가 참여한 북토크를 개최했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영’에서 개최된 이날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제

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여 ‘안정성장(stable and reasonable growth)’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저자는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류는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토크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과 한영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의 변주를 통한 제언들이 앞으로 제주사회의 경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면서, “곧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는 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전선언 제안 적극 지지, “평화·번영의 토대 마련”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

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가 재구축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은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정상간 한반도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제76차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전국 지자

체 가운데 최초로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흑돼지 사육협력사업과 같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를 통하여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구성되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경제, 문화예술, 역사,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남북평화교류 및 통일역량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 평화문화 확산·통일역량 강화 업무협약

### 도의회-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반도 평화문화 확산과 도민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도의회-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가 한반도 평화문화 확산과 도민 통일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체결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정책 관련 정보공유 및 여론 수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함양 및 도민 통일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도민 공감대 확산 등 분야에서 협력체계



를 구축한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남북교류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주문화관 4층 대강당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과 공동으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 연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제주도의 준비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제시한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 연구는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5+1사업의 중간 단계로 감귤 가공제품, 가공기술, 판매 플랫폼 구축의 패키지 지원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바다양식 협력사업, 백두 협력의



상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삼지연 지역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 등 감귤 비타민C 외교를 발판으로 더 확장된 사업을 제시했다.

강민숙 위원장은 “이번 ‘제주형 남북

교류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공동세미나 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4·3의 정의로운 출발, 완전한 해결 기여

### 4·3특위, 주요성과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회의실에서 '4·3활동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발표로 4·3활동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과 새롭게 제기되는

4·3의제에 대해 유관 기관과 단체의 제안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성과로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관련 조례 제·개정 ▲4·3진상규명 활동 ▲4·3관련 문화예술 지원 및 격려 활동 등이다.



## 4·3지방공휴일 전국 달력 표기 본격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강철남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4·3지방공휴일의 전국달력 표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용범 위원장, 강철남 위원장, 오임종 4·3유

족회장, 강민철 제주자치도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 김용범 의원의 건의문을 전달받고 4·3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등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원욱 위원장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향후 4·3지방공휴일의 전국 달력 표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강민철 4·3지원과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장

## 총무 홍경찬, 의사 강동언, 정책입법 양필성

### 2022 상반기 정기인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에 제주시에서 전입한 홍경찬 서기관이 임용됐다. 제주도의의회는 1월 12일자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33명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에서 전입한 홍경찬 서기관(사진 위왼쪽)이 총무담당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에서 전입한 강동언 서기관(사진 위오른쪽)이 의사담당관, 제주도(감귤진흥과장)에서 전입한 양필성 서기관(사진 아래)이 정



책입법담당관 보직을 받았다.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마지막으로 단행한 정기인사다.

## 도의회,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시상했으며, 주민화합과 의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 111명이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올 한해 의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전하며, "내년에도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21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연구활동 주제 및 성과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정책입법담당관 우수부서

### 도의회 4분기 의정홍보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도 4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로 농수축경제전문위원과 정책입법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의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분기별로 운영·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로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